

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방문자 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	빅토리아
산업·경제	5	어번던스 코업마켓, 생산자·소비자 상생모델 제시	로체스터
사회·복지	7	‘거주 외국인 삶의 질 향상’ 민간단체사업 지원	도쿄
환경·안전	9	내년부터 저공해버스 전용지역 설정	런던
	11	피난처 운영 등 여름철 폭염 대비 재난정책 시행	뉴욕
	13	‘수도직하지진’ 대비 방재교육 앱 출시	도쿄
도시계획·주택	15	“사회적 주택 임대 중개회사 운영 성공적”	버밍엄



방문자 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

2025년까지 연간 수입 31조 원·일자리 32만 개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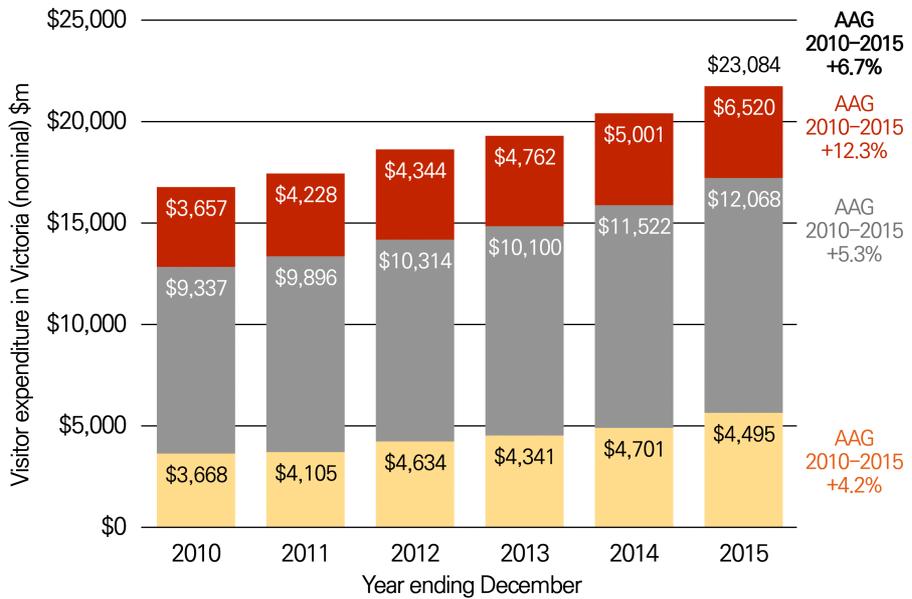
호주 빅토리아주 / 산업·경제

- 호주 빅토리아주는 주의 방문자 경제(Visitor Economy)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‘빅토리아 방문자 경제 전략(Victorian Visitor Economy Strategy)’을 수립
 - 주는 향후 경제성장을 담보할 주요 산업분야로 방문자 경제를 선정
 - 2025년까지 방문자 수입을 연간 366억 호주달러(31조 원)로 늘리고, 이 분야의 일자리를 32만여 개로 늘리는 것이 주요 목표
 - 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 및 각 영역에 대한 투자계획을 제시

- 배경
 - 빅토리아주의 방문자 경제 비중의 증가 추세
 - 2010년부터 연간 방문자 수입이 매년 6.7%씩 성장
 - 2015년 현재 방문자 수입은 231억 호주달러(20조 원)
 - 해외 방문자 수는 연간 5.7%씩 증가
 - 사업과 유학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의 기여도가 점차 증가
 - 전체 방문자의 0.3%에 불과한 유학생이 방문자 수입의 12%를 차지
 - 2013/2014년 한 해 유학생이 사용한 경비는 40억 7천만 호주달러(3조 5천억 원)

 - 주는 양질의 교육도시, 국내 우수 기업의 본사가 있는 비즈니스 도시, 살기 좋은 도시 등의 이미지와 명성을 바탕으로 탄탄한 방문자 경제를 구축

- 방문자 경제 전략의 우선순위 및 실행계획
 - 민간분야의 투자 확대
 - 주요 내용: 주요 관광지의 시설 개선, 토지사용 규제 완화, 민간업체의 투자 촉진



Source: National Visitor Survey (NVS) and International Visitor Survey (IVS), TRA

Domestic Daytrip Visitor Estimates
 Domestic Overnight Visitor Estimates
 International Overnight Visitor Estimates

빅토리아주 방문자의 지출 추이

- 실행계획
- 상업성이 높은 상징적인 10대 명소 선정
- 관광상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실행계획 및 사례집 발간
- 도심 외곽지역의 잠재력 활용
 - 주요 내용: 지역의 자연환경, 음식 및 와인농장, 문화재 활용
 - 실행계획
 - '지역관광 인프라 기금'에 1억 호주달러(844억 원) 투자
 - 유학생 유치 활동 촉진
- 빅토리아주의 브랜딩(Branding)
 - 주요 내용: 빅토리아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국제 이미지 구축
 - 실행계획
 - 국제마케팅을 위해 '빅토리아 관광청(Visit Victoria)' 설립

- 향후 2년 동안 국내외 마케팅에 3,800만 호주달러(321억 원) 투자
- 해외 유학생 유치에 3,200만 호주달러(270억 원) 투자

- 이벤트 효과의 극대화
 - 주요 내용
 - 스포츠, 문화, 여가활동(Entertainment) 분야의 국제 이벤트 유치
 - 이벤트 시설의 개선 및 확충
 - 실행계획
 - '이벤트 펀드'에 매년 2천만 호주달러(169억 원)를 향후 4년간 투자
 - '멜버른 컨벤션 센터' 확장에 2억 500만 호주달러(1,731억 원) 투자

- 아시아 방문자들의 기대와 욕구 반영
 - 주요 내용
 -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방문자들의 급속한 증가
 - 2015년 중국인 방문자의 지출은 34억 호주달러(2조 9천억 원)
 - 실행계획
 - 아시아 문화의 인지도 향상
 - 아시아 언어 서비스 확충
 - 아시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상품 개발

- 관광 기반시설 개선
 - 주요 내용: 스포츠, 예술, 문화행사, 자연환경 관련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
 - 실행계획
 - 외곽지역의 스포츠 및 예술 관람시설, 원주민 문화유산에 1억 호주달러(845억 원) 투자
 - 인터넷 접근성 향상 및 고품질화

- 도로 및 교통 기반시설 개선
 - 주요 내용
 - 공항부터 주요 관광지로 연결되는 도로 및 교통 기반시설 개선
 - 실행계획
 - '멜버른공항 마스터플랜 2013' 지원

- 아발론공항(Avalon Airport)을 빅토리아 제2국제공항으로 격상
- 방문자 경제 노동력 제고
 - 주요 내용
 - 방문자 경제의 성장과 추가 잠재력에도 노동력 부족 현상은 심각
 - 현재 7만여 개의 사업체에서 20여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10년 후에는 32만여 명으로 증가 예상
 - 실행계획
 - 기술전문학교에 3억 2천만 호주달러(2,700억 원)를 투자해 방문자 경제 분야의 노동력 확충
 - 방문자 경제 분야의 사업체들과 협력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군의 발굴 및 훈련 지원
- 정부 간 그리고 민관 협력체제 구축
 - 주요 내용
 - 방문자 경제 부양은 민간사업을 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
 - 도시계획, 민관협력, 시행지원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효과적임.
 - 실행계획
 - ‘빅토리아 관광청’을 마케팅과 조달업무를 위한 통합기관으로 활용
 -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‘방문자 경제 자문위원회’ 설립
 - 방문자 경제 전략과 관련 실행계획의 개발

<http://www.premier.vic.gov.au/visitor-economy-strategy-to-keep-victoria-number-one/>

http://economicdevelopment.vic.gov.au/_data/assets/pdf_file/0006/1340979/Visitor_Economy_Strategy.pdf

산업·경제

어번던스 코오프마켓, 생산자·소비자 상생모델 제시

미국 로체스터市 / 산업·경제

- 미국 로체스터市 소재 어번던스 코오프마켓(Abundance Food Co-op)은 생산자인 농장과 소비자인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농산품 및 식품유통 모델을 제시하며 강력한 생산자-소비자 관계를 형성
 - 농장은 안정적인 수입과 유통구조를 확보하고 작황 상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장경영이 가능
 - 주민에게는 농장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작물을 주기적으로 공급
- 코오프마켓의 개념
 - 개인이 유통센터의 지분을 구매하고 운영·관리에 참여
 - 지역 내 식료품점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식료품을 판매하며, 농장의 지분을 가진 개인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
- 어번던스 코오프마켓 소개
 - 중·소규모 농장의 유통센터로 출발
 - 주주가 되려면 1제좌에 100달러(113,000원)인 조합의 지분을 구입해야 함.
 - 주주는 어번던스 코오프마켓에서 자기 지분만큼의 식료품을 공급받음.
- 어번던스 코오프마켓이 추구하는 가치
 -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하고 건강에 좋으며 인도적으로 생산된 식품과 제품을 공급
 - 유기농 식품,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및 제품을 최소한의 가공과 포장 과정만을 거쳐 공급
 - 지속가능한 농장 경영 및 유통구조 확립
 - 소규모 농장, 가족농장, 협력업체, 공정거래법을 따르는 소규모 회사들을 지지하고 도움.
 - 지속가능한 식품체계를 지원하는 다른 조직과 협력 및 교류

- 활기찬 코업 공동체 구축
 - 다양하고 폭넓은 계층의 소비자와 주주로 구성
 - 주주들에게 코업의 경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인의식을 고취
 - 다른 코업마켓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코업마켓이 생기도록 지원

- 다양한 미디어와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건강, 식품안전, 지속가능한 먹거리 등에 대한 교육 실시

- 어번던스 코업마켓의 주주가 받는 혜택
 - 매달 하루 정상가의 10% 할인
 - 주주에게만 판매하는 식품 및 제품을 구매
 - 지분에 비례해 코업마켓의 운영 수익 배당

<http://abundance.coop>

<http://abundance.coop/what-is-a-csa-anyway/>

<http://www.justfood.org/csa>

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Community-supported_agriculture

<http://www.peaceworkcsa.org/about/contact/>

사회·복지

‘거주 외국인 삶의 질 향상’ 민간단체사업 지원

일본 도쿄都 / 사회·복지

- 일본 도쿄都는 도쿄 거주 외국인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경제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‘도쿄도 재외국인 지원사업(東京都在在外国人支援事業助成)’을 2016년 4월부터 1년간 실시
 - 이 사업은 민간단체들이 추진하고 예산 일부를 도쿄도가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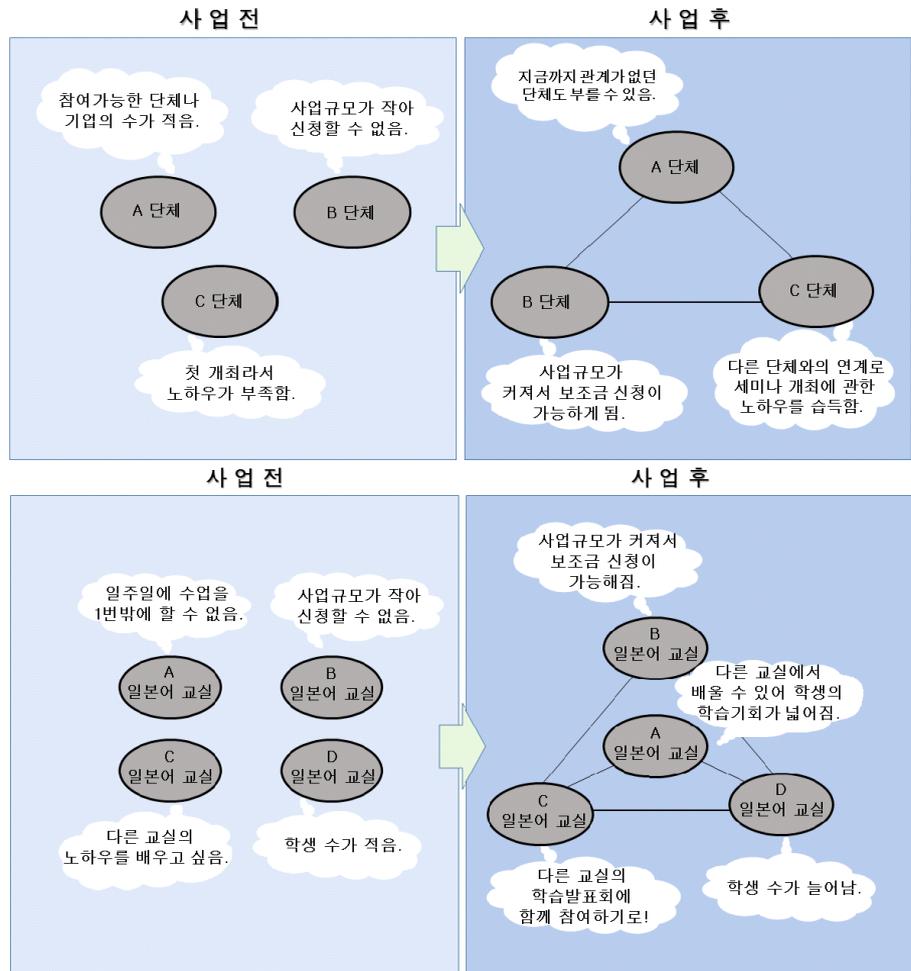
- 지원 금액 및 조건
 -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% 범위에서 최고 500만 엔(5,500만 원)
 - 지원 조건
 - 사업비 총액이 50만 엔(550만 원) 이상이며, 1단체 1사업이 기준임.
 - 동일연도 도쿄도의 다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음.

- 지원 대상 사업
 - 거주 외국인 활약 추진 사업
 - 외국인이 도쿄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또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
 - 외국인 자녀의 취학 및 진학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
 - 유학생 등의 취업 및 창업 지원

 - 커뮤니케이션 사업
 - 외국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본어 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
 - 일본생활에서 언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·지원하는 사업

 - 생활지원 사업
 - 거주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 등을 해결·지원하는 사업
 - 의료·방재·주거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

- 상담 사업
- 다문화 공생의식 계발 사업
 -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,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
 - 외국인이 일본의 문화와 관습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
 -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교류 행사



연계사업의 사례 개념도

http://www.seikatubunka.metro.tokyo.jp/chiiki_tabunka/tabunka/tabunkasuishin/files/0000000158/h28guide.pd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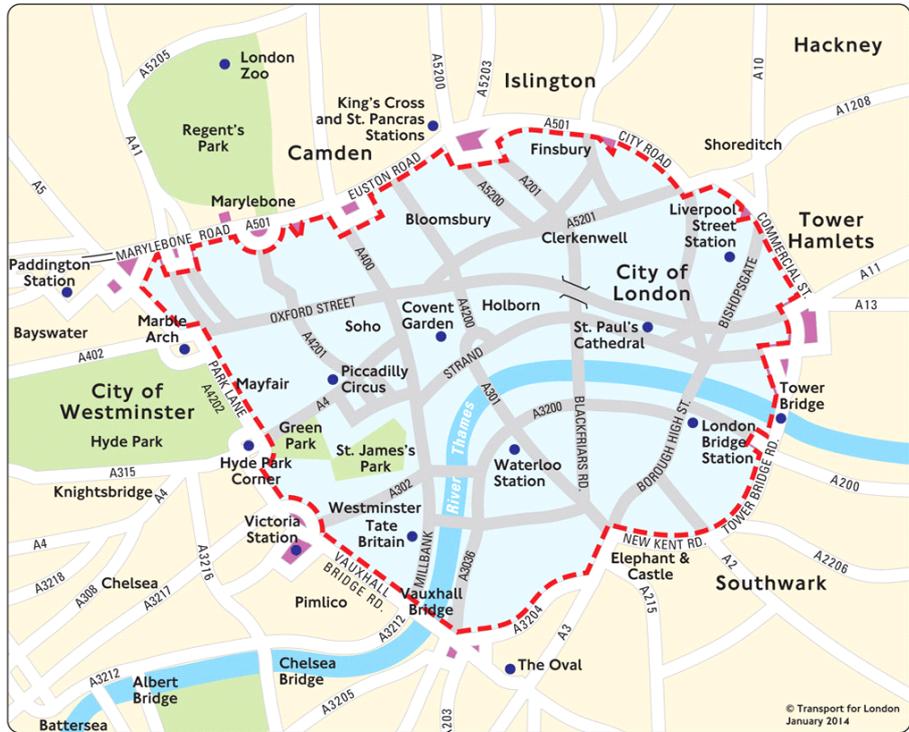
http://www.seikatubunka.metro.tokyo.jp/chiiki_tabunka/tabunka/tabunkasuishin/0000000158.html

환경·안전

내년부터 저공해버스 전용지역 설정

영국 런던市 / 환경·안전

- 영국 런던市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‘저공해버스 전용 지역(Low Emission Bus Zones)’을 설정하여 하이브리드 또는 유로6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버스만을 운행하겠다고 2016년 8월 발표
- 배경
 - 최근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매년 1만 명에 달하는 런던시민이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함.
 - 이 계획은 런던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사디크 칸 런던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임.
- 저공해버스 전용지역
 - 런던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저공해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
 - 2017년 2월 첫 번째 저공해버스 전용 노선을 퍼트니 하이 스트리트(Putney High Street)에서 운행하고, 10월에는 브릭스톤(Brixton)과 스트리섬(Streatham) 노선에서 운행할 예정
 - 시는 해당 노선의 버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(NO_x)의 양이 84% 감소할 것으로 예상
- 저공해버스 도입 및 운영
 - 런던시는 저공해버스 전용지역을 도입하고 런던 도심부의 초저공해 지역(Ultra Low Emission Zone)을 운행 중인 3,100대의 버스를 2019년까지 저공해버스로 대체할 예정
 - 초저공해지역 버스 개선 프로그램을 도심부 외곽을 운행하는 3천 대의 버스로 확대 적용할 예정
 - 2018년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또는 무공해 버스만을 구매



초저공해 지역(Ultra Low Emission Zone)의 경계

<https://www.london.gov.uk/press-releases/mayoral/mayor-announces-first-clean-green-bus-routes>

<https://www.london.gov.uk/press-releases/mayoral/bold-plans-to-clean-up-londons-toxic-air>

<https://tfl.gov.uk/corporate/about-tfl/improving-air-quality?intcmp=41564>

피난처 운영 등 여름철 폭염 대비 재난정책 시행

미국 뉴욕시 / 환경·안전

- 미국 뉴욕시는 여름철 도심 기온이 도시 주변에 있는 지역보다 화씨 10도(섭씨 5.6도) 이상 높게 나타나는 도심 열섬현상을 고려하여 폭염 대비 재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매뉴얼을 업데이트함.
 - 뉴욕시는 매년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여 일반에 공개
 - 특히 이번 주말(8월 13일부터)부터 화씨 100도 이상(섭씨 37.8도)의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폭염주의보 발효, 폭염 피난처(Cooling Center) 운영시간 조정, 폭염 발생 시 행동강령 등을 발표

- 폭염 대비 주요 정책
 - 폭염 피난처 운영
 - 폭염과 열섬현상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냉방시설을 가동하는 도서관, 커뮤니티 센터, 노인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활용
 - 올해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폭염 피난처의 운영시간을 늘려 운영하기로 함.

 - 노숙자 쉼터: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확보하고, 폭염 피난처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

 - 소화전 사용 허가
 -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소화전의 수도를 트는 것을 허용
 - 단, 물이 나오는 곳에 반드시 스프레이 캡(Spray Cap)을 씌우고 소화전을 틀어야 함.

 - 이동식 식수대 설치
 - 2010년부터 공원, 광장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 이동식 식수대를 설치(자세한 사항은 세계도시동향 315호 중 '여름철 공공장소에 이동식 식수대 제공' 편* 참조)

* 세계도시동향 315호 (<https://www.si.re.kr/trends?booknumbering=18643>)

- 도시 내 공사현장의 굴착은 폭염으로 2016년 8월 15일자로 연기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제
- 뉴욕시 권장사항
 - 노약자나 독거노인,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물 복용자, 치매나 정신질환자 등은 필요하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장
 - 열성질환에 주의할 것도 당부

<http://www1.nyc.gov/office-of-the-mayor/news/669-16/mayor-de-blasio-urges-new-yorkers-take-steps-protect-themselves-during-excessive-heat/#/0>

<http://www1.nyc.gov/assets/em/html/beat-the-heat/beattheheat.html>

http://www1.nyc.gov/assets/em/downloads/pdf/heat_brochure_korean.pdf

<https://blog.epa.gov/blog/2012/05/do-you-use-nyc-drinking-water-fountains/>

‘수도직하지진’ 대비 방재교육 앱 출시

일본 도쿄都 / 환경·안전

- 일본 도쿄都를 포함한 관동지역에서 수도직하지진(首都直下地震)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도쿄대학교는 이에 대비한 방재교육 교재를 개발하였고 앱으로도 출시
 - 이 앱에는 ‘수도직하지진 72시간’ 동안 상황에 따른 간접체험과 ‘우리 마을에 수도직하지진’이 발생할 때 예상 피해와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2가지 기능을 탑재

– ‘수도직하지진 72시간’의 주요 기능

- 수도직하지진이 발생한 후 72시간의 모습을 이용자의 시선을 통해 체험
- 이를 통해 지진이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,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이 가능
- 지진 발생 후 72시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행동 등을 기록함으로써 지진 발생 후 자신의 72시간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
- 또한 자신의 행동을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동료나 가족 등 같은 공간에서 지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과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피드백도 들을 수 있음.



앱 이용자가 지진 발생 시나리오를 사무실로 설정했을 때 지진 발생 후 모습

– ‘우리 마을에 수도직하지진’이 발생할 경우

-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에 지진이 발생할 때 피해와 위험 정도의 확인 및 가까운 대피소 등의 검색이 가능

- 방재 지도는 건물의 '흔들리기 쉬움', '건물붕괴 위험도', '화재 위험도', '종합 위험도'에 따른 단계적 위험도를 제공
 - 흔들리기 쉬움: 표층 지반의 흔들림을 4단계의 색으로 표시
 - 건물붕괴 위험도: 건물 붕괴의 위험 정도를 3단계의 색으로 표시
 - 화재 위험도: 화재 발생의 위험 정도를 3단계의 색으로 표시
 - 종합 위험도: 화재 위험도와 건물붕괴 위험도를 종합해 3단계의 색으로 표시



방재 지도를 이용한 지역의 위험성 예측 결과

<https://www.tokyojishin.org/anamachi/about.html>

<https://www.tokyojishin.org/anamachi/>

<https://www.tokyojishin.org/72h/about.html>

<https://www.tokyojishin.org/72h/index.html>

도시계획·주택

“사회적 주택 임대 중개회사 운영 성공적”

영국 버밍엄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영국 버밍엄市는 도심 지역의 인구 급증으로 인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메가 임대회사(Omega Letting Limited)와 공동으로 민간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주택 임대 중개회사인 ‘Let to Birmingham’을 2014년 9월 출범시킴.
 - ‘Let to Birmingham’은 비싼 주거비, 한정된 주거 선택권, 주거의 안전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임대 중개회사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 중
 - 임대인에게는 주택 컨설팅부터 관리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합리적인 가격과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



Let to Birmingham 로고 이미지

-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
 - 임대주택 착수금(Set-Up Fees) 면제
 -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민간의 주택중개회사를 통해 주택을 임대시장에 내놓을 때 관행적으로 내는 착수금의 면제
 - 임대주택에 대한 컨설팅 실시
 - 임대인이 ‘Let to Birmingham’에 임대신청을 하면 먼저 조사관을 파견해 해당 주택이 시에서 지정한 임대주택 최소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한 후 보고서와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
 -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감면 등 주택 관련 혜택을 조언

- 주택임대차서비스 제공
 - ‘Let to Birmingham’은 버밍엄시가 가지고 있는 세입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임대주택의 조건과 임차인의 희망 사항에 대한 매칭 작업을 실시
 -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정하면 당일 방문 및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최단 시간에 계약을 성사시킴.
- 임대계약 이후 관리서비스 제공
 - 임대계약 기간에 임대인을 위해 월세 입금 확인, 주기적 주택 방문, 세입자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
 -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
-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
 - 세입 희망자들이 주택 매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버밍엄시청 홈페이지에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
 - 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택들은 모두 주거 안전기준을 충족
 - 세입 희망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주택의 방문신청이 가능
 - ‘Let to Birmingham’을 통해 임대계약을 한 세입자는 ‘Let to Birmingham’과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을 면제받게 됨.
 - ‘Let to Birmingham’을 통한 임대계약은 주로 선착순으로 진행됨.

<http://www.lettobirmingham.com/>

<http://birminghamnewsroom.com/tenants-talk-about-let-to-birmingham/>

<http://www.birminghamhousingoptions.org.uk/lettobirmingham.php>